



## 일본 경제성장, 수출에서 내수 주도로 전환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은행(BOJ)이 발표한 2012년 6월 금융경제월보<sup>1)</sup>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는 수출 대신 내수 주도로 성장했다는 평가임.

- 대지진 피해 재건 관련 수요에 따른 공공투자 및 설비투자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 개인 소비 역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음.
  - FY2011 4/4분기 공공투자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며, 설비투자는 내수관련 제조회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감.
  - 개인소비는 엔화가치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지출여력이 커져 소비심리가 개선됨.
  - 일본의 자동차판매는 정부의 수요 자극 정책 효과로 소형차 및 경차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함.<sup>2)</sup>
- 한편,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속에서 일본의 수출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, 수입은 화력발전용 연료를 중심으로 4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■ FY2011 4/4분기 경제성장률은 앞서 발표된 4.1% 보다 0.6%p 상향된 4.7%<sup>3)</sup>를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지진 충격으로 침체에 빠졌던 일본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.

- 일본은행의 경제성장률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대지진 복구에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20조 엔의 재건 프로그램 덕분에 일본 기업들이 엔화강세와 유럽 재정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함.
  - 또한, 내수 증가는 임금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구조도 벗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.

1) FY2011 4/4분기 실적치([http://www.boj.or.jp/mopo/gp\\_2012/gp1206.pdf](http://www.boj.or.jp/mopo/gp_2012/gp1206.pdf)).

2)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제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의 경우 대기업은 1985년 1/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, 중소기업도 1989년 1/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.

3) 연율기준이며 전분기대비 수치임.

- 또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하는 건설투자 규모는 4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, 관련 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가 약 50만 명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.
  - 그러나 대지진 부흥 사업의 본격화로 구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구인 내용과 구직자의 희망이 엇갈려 실업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(일본은행 外, 6/19)